



디트론 배뇨 감지기 '파루스'

“노년 마지막 자존감 지켜주기 위해 개발”

요양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를 위해 간병인이 상주한다.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의 몸을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간병인에게 치매 환자는 좀 더 까다롭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데다 배뇨 상태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환자들은 이를 수치스러워한다. 안성훈 디트론 대표는 2015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간병인의 고충을 알게 됐다. 2시간마다 기저귀를 확인하는 일은 고역이었다. 한밤중에 기저귀를 갈 때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잠에서 깨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안 대표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배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간병인과 환자 모두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환자는 바지를 자주 내려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간병인은 환자 관리가 수월해지는 배뇨감지기 '파루스'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다.



안성훈 디트론 대표가 배뇨감지기 '파루스'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디트론
설립 2017년 6월
위치 인천 연수구 벤처로
제품 휴대용 배뇨감지기
특징 옷을 입은 상태에서 기저귀의 젖음 여부를 LED로 확인

더 해결했다. 옷에 붙이는 센서 등에서 환자에게 해로운 전자파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제품은 센서를 기저귀 안에 넣어 소변을 감지하고 전자파 신호를 이용해 다른 단말기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파루스는 충전 방식이 아니라 AAA건전지 2개로 작동한다. 안 대표는 “미세한 전기장으로 액체 유무를 파악하는 제품이라 적은 전력으로 작동이 가능하다”며 “간전지 한 번 교체로 1년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품 가격은 7만9000원이다.

그는 “은퇴를 준비하던 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명감 때문이었다”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www.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삼성전자 출신 안성훈 대표

요양병원서 어머니 간호하다

감지기 아이디어 얻어

옷 위에 센서 대면 배뇨 확인

인은 센서면 전체를 옷 위에 밀착시킨 뒤 버튼을 누르면 환자의 배뇨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빨간 불빛이 표시되는 곳은 젖은 부위를 의미하고, 젖지 않은 부위는 녹색 불빛이 표시된다. 젖은 면적의 크기를 기준으로 기저귀 교체 시기를 판단하면 된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안 대표는 “소리라 진동으로 배뇨 상태를 확인하면 야간에 주변 환자를 깨울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작은 불빛으로만 배뇨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보다 일본에 먼저 수출 파루스는 국내에서 판매되기 전에 일본에 먼저 수출됐다. 실버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 1000대 이상을 사갔다. 한국 간병인이 일본에 있는 요양 시설을 방문했다가 파루스를 발견하고 안 대표에게 문의하는 일도 있었다. 중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안 대표는 개발 과정에서 세계로 수출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자파 문제부

◆ 마지막 존엄을 위한 제품

안 대표는 “파루스는 환자의 바지를 내려 확인해야 하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으로 노년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고 싶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환자의 괴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의미다. 파루스라는 이름엔 ‘새벽’에 알리는 종이라는 뜻이 담겼다. 파루는 조선 시대에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해 종각의 종을 서른세 번 치던 것을 말한다.

파루스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기저귀의 젖은 부위를 색상으로 보여준다. 간병

‘외국인 근로자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이 가장 큰 애로

중기중앙회 182개사 현장조사

“외국인 근로자는 수시로 다른 공장으로 가겠다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회사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태업하고 결근하는 일도 많다.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줄 수밖에 없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 A업체 사장의 말이다. 업무가 더 편하거나 친구가 있는 사업장으로 옮기겠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대한 목소리를 종합한 '외국인력(EN) 활용 중소기업체 현장방문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활용 중소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37.9%)이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시간과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태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강원 원주시에 있는 B업체 관계자는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는 경우 아무 사업장이나 지원해서 입국한 뒤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며 “근무처를 변경해 주지 않으면 협박, 막무가내 때리기, 외국인 인권단체를 활용한 업무 방해 등 다양한 행동을 한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또 “한국어 능력 부족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낮은 생산

성’(36.8%), ‘최저임금 인상 및 동일 임금 적용에 대한 애로’(20.3%), ‘기술사 생활 등 인력 유지 못한 개인 생활’(9.3%), ‘복잡한 신청 절차 등 오래 걸리는 채용 과정’(8.8%) 등을 외국인 고용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충남 천안시의 C업체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데 급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줘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하면서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는 국적, 키, 몸무게, 나이 정도밖에 없다”며 “채용이 유능한 근로자를 뽑는 게 아니라 사실상 복불복”이라고 주장했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권하는 이유



오기백 OhYLab 대표



해했다. 코칭을 해준 세무사는 ‘한 푼이 아쉬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일단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세무대리비용만

무슨 일든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설렌다. 막막함이 동시에 찾아온다. 하물며 삶이 달린 일이라면. 기세 좋게 ‘이런 사업을 내 손으로 해보리라’며 일을 벌였지만 뒷수습을 생각하니 막막함이 밀려왔다.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지원서를 쓰면서 방향을 잡은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에 선정된 것만으로 기뻐하기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 나이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고 판매하기까지는 많은 기관과 업체가 얽힌다. 콘텐츠 기획만 할 줄 아는 직장인으로서 넘어야 할 벽이 많았다. 세무와 회계는 ‘딴죽과 더하기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디자인이나 개발, 양산 같은 영역은 아예 생각해보진 않았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예비창업자에게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학교’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졸업 때까지 창업과 관련해 120학점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 덕분에 세무에서 곱하기와 더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예비 중의 예비 창업자에게는 거품에 대비 같은 수업이었다.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할지도 전문가를 만나본 뒤에 알게 됐다. 주변 사람들은 ‘회사가 있어 보이면 법인으로 해야 한다’ 등 모호한 조언을

해도 법인보다는 개인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함께 입교한 창업 선배의 조언도 도움이 됐다. 각종 지원 사업은 보통 ‘창업 후 3년 이내’ 같은 조건이 붙는다. 개인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규모가 커질 때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창업 날짜가 바뀐다는 타이였다.

수업을 듣다 보니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원 고용만 해도 그렇다.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려면 관련 기관 홈페이지(혹은 담당자)와 한참을 씨름해야 한다. 하다못해 근로기준법에 맞게 급여를 계산하는 것조차 어렵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게다가 이 비용은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지원해 준다.

시작이 반이었다. 밤마다 머리를 싸쥐며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는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발로 뛰면 해결됐다. 밖으로 나가는 대로 도움을 청했다. 이전 직장에서 알게 돼 언젠가는 함께 일해보고 싶었던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디자인을 맡겼다. 기존 인맥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끌어모아 증강현실(AR) 영상을 제작하고 애플리케이션(AR) 앱을 개발할 업체를 찾는 중이다.

solea.oh@gmail.com

작년 中企 수출 1146억 弗 사상 최대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수출이 114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2017년(1061억 달러)에 비해 8% 늘어난 수준이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2017년 9만2374개에서 지난해 9만4589개로 2.4% 증가했다. 수출액과 수출기업 수 모두 역대 최대다.

품목별로는 플라스틱제품과 자동차 부품 수출이 늘었다. 플라스틱 수출은 55억 달러로 2017년 대비 6.1%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은 49억 달러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한국 완성차 기업의 해외 공장이 늘어나면서 부품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장 많이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기타기계류와 무선통신기이다. 기타

기계류 수출은 29억 달러로 2017년에 비해 11.6% 줄었다. 무선통신기기는 21억 달러로 7.1% 감소했다. 중기부는 기타기계류 수출이 줄어든 것은 2017년 한국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했다. 무선통신기기(휴대폰) 수출 감소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봤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가장 많다. 273억 달러로 2017년에 비해 17% 증가했다. 화장품 수출과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늘었다. 이어 미국에 133억 달러, 일본에 107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신흥시장 수출도 증가했다. 멕시코와 브라질에 있는 완성차 공장 생산량이 늘면서 이곳으로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과 차량판 수출이 증가했다. 지난해 중남미 지역으로 47억6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NICE 디앤알
NICE Data & Research, Inc.

WWW.NICEDATA.CO.KR

치킨집 김사장님! 어려울수록 답은 절세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절세 도우미 - 나이스 부가세환급지원 서비스

2018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2019년 1월 1일 ~ 1월 25일)

언제나 무료!

제휴카드 발급 받으면
서비스가 무료

스마트하게 알아서!

내가 사용한 카드내역을
알아서 자동으로 분류

간편하게 한방에!

복잡한 세무지식 없이도
의제매입, 차량공제,
통신공제도 적격

용도에 맞게 자동생성!

직접 신고용 자료 O.K!
세무대리인 제출용 자료 O.K!

| 나이스데이터 홈페이지(www.nicedata.co.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롯데카드 회원은 무료로 이용하세요!

롯데 Tax save 법인 카드
[롯데카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B00105호 (2019.01.16)]

부가세환급지원
서비스 문의
1588 - 5659